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요

성경 사도행전 5:17-32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1 나의 가는 길(은혜의 찬양 255장)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2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찬송가 428장)

- 1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 2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 3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갓들고
주 은혜 꽃 피네
- 4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 주시네

[후렴]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취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뵈을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말씀 읽기 사도행전 5:17-32

- 17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 18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 19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 20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 21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 22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 23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 24 성전 말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 25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라 하니
- 26 성전 말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 이더라
- 27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 28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 29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 30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 31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 32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본문 배경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싫어했습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람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옥 안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꺼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백성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새벽에 옥에서 나오자마자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사도들을 다시 공회에 세워 심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이상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며(행 5:29),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로 인해 채찍을 맞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오히려 기쁜 일이라며,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은 더욱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을 때,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전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말씀 관찰

1 감옥에 갇힌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명한 것은 무엇인가요?(19-20절)

답 감옥에서 나가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해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던 사도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시기를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그들을 감옥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풀려난 사도들에게 성전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도들은 위험을 피하거나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날이 밝자 다시 성전에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2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계속 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29-32절)

답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해설 공회는 사도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여러 번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다고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증언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선포했습니다. 믿음은 순종하기 편할 때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반대가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적용

1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났음에도 다시 복음을 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우리 가정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야 하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0-3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는지

사도행전 5장 42절

swing
♩ = 115

작곡 이종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 —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 오장 사십이절 말씀 아멘 —



가정예배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옳은 길임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도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도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살아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